

제4차(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1. 11. 23.(화) 11:00	장소	용인시종합가족센터 4층 대강당
참여자	위원장	-	
	위 원	권정희, 신재학, 최재우, 여홍명, 한상욱, 이수희, 윤우영	
	기록자	정희자	

보고번호	안 건 명	보고내용	구분
제1호	2021년 주요사업	가결	
제2호	2021년 3차 추경보고	가결	
제3호	2021년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가결	
제4호	2022년 예산 및 사업계획	가결	
제5호	2022년 주요사업	가결	
제6호	논의사항 및 정책건의	가결	

* 첨부 : 회의록

위와 같이 보고받았음을 확인 날인(서명) 함.

2021년 11월 23일

용인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 원 권 정 휘

위 원 신 재 학

위 원 최 재 우

위 원 여 홍 명

위 원 한 상 욱

위 원 이 수 희

위 원 융 우 영

용인시가족센터

2021년 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 코로나19에 따른 회의 대처 : 입장 전 발열체크와 소독진행,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좌석배치 및 가림막 세팅 등
- 일 시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11시
- 장 소 : 용인시종합가족센터 4층 대강당
- 참 석 : 총 7명
 - 위원 : 권정희 위원, 신재학 위원, 여홍명 위원, 윤우영 위원, 이수희 위원, 최재우 위원, 한상욱 위원
- 성원 보고
 - 김아영 총괄팀장 : 용인시가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총 8명 중 7명 참석하여 성원 성립함을 보고하다.
- 개회 선언
 - 김아영 총괄팀장이 2021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를 선언하다.
- 보고사항에 대한 건
 - 김아영 총괄팀장이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PPT자료를 중심으로 2021년 주요 사업 보고, 3차 추경보고, 4분기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2022년 예산 및 사업 계획과 주요사업을 보고 한 후 논의사항 및 결산 건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다.
 - 제1호 의안 : 2021년 주요사업 보고
 - 김아영 총괄팀장이 2021년 주요사업 보고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부족분 사업비를 PPT자료로 보고하다.
 - 질의사안
 - 이수희 위원 : 2021년 주요사업 보고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부족분 사업비 보고 이후 질의 요청하다.

- 한상욱 위원 : 한부모가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키트 배부 및 비대면 공연 등 코로나 발생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잘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주 토요일에 진행한 아버님들 자조모임에서 시장님의 감명을 받으셨다고 한다. 참석자 아버님이 육아의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내를 위해 아이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가족센터를 찾아오게 되어 아내에게 휴식시간을 줄 수 있어 행복해하셨고 시장님께서 아버님들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가족문화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다.
- 권정희 위원 : 올해 어떤 사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올해 기억남는 사업으로는 다문화한마당축제를 진행하였는데 많이 신경쓰기도 했고 대면 진행도 어려워 이 행사가 너무 의미 없이 진행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까 해서 올해는 지역사회협의회도 구축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다. 어려움은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역주민들과 외국인 주민들,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한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감명이 깊었으며 아쉬운점은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점이 늘 아쉽다. 향후 센터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가족행사축제를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아빠들이 모여서 운동회하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다문화한마당축제가 되어야 할지 세계인의 날이 되어야 할지 매년 부딪히는 부분이며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 권정희 위원 : 예전에 다문화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보험문제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 체육대회 등 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 일회성

보험이 적용되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외국인들 보험이 적용 된다고 답변하다. 다문화가족들은 비다문화가족들과 연계를 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데 저희 대상에 외국인 주민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서비스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 권정휘 위원 : 앞서 발표한 2021년 사업 중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에서 결연 대상이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현재 법인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집중하고 있다. 연결해주시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 이수희 위원 : 연계하겠다고 답변하다.
- 한상욱 위원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에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센터와 협업을 해서 12월에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다. 이 부분이 좀 더 빨랐다면 이렇게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차용하는 금액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이런 부분 체크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여 서비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다. 다만 2주간 서비스를 잠시 중단하는 부분은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주길 바란다.
- 이수희 위원 : 걱정이 있다면 미리 운영위원회에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릴 시기가 없을 것 같다. 그부분에 대해 미리 보고 드린다. 여성가족부가 확정여부를 진행중인 상황이라 이사회 보고도 12월말~1월에 보고될 것 같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 권정휘 위원 : 2주간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2주간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약 200여명의 아이돌보미들의 급여가 약 1억 정도 지급되나, 최대한 안전하게 2주 정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 추후 확보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만

부족하게 되면 더 이상 예산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다.

현재 이사회 보고 일정이 진행되지 않아 가장 걱정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센터들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회 보고 등,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것 같다. 용인시와 협조적으로 가능하고, 예산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나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

- 한상욱 위원 : 지난주에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소통을 했는데 여성가족부 입장도 어려움이 있다. 약 23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다. 용인시처럼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각 시 군에서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비적인 비용이 있어 부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늦은감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12월 급여일에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갔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용인시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했으나 여려번 남는 시 군의 예산을 조정하여 받았지만 그 금액에 맞춰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노력하겠다. 용인시가족센터에서 열심히 서비스 연계해주셔서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가장 상위등급을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 예산이 부족하도록 서비스 연계를 열심히 했다.
- 제2호 의안 : 2021년 3차 추경보고, 2021년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 2022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
 - 김아영 총괄팀장이 2021년 3차 추경보고, 2021년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 2022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PPT자료로 보고하다.
- 질의사안
 - 권정희 위원 : 후원금 비율이 예산 규모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후원금 담당자가 있는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후원금 담당이 있다고 답변하다.
 - 권정희 위원 : 일반 복지 시설에 비해서는 후원 비율이 적은거 같다.

- 이수희 위원 : 정규 T.O 자체가 팀장이 후원을 하면서 팀을 관리하기 때문에 후원사업의 담당은 있으나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올해 적극적인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업무 분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권정희 위원 : 동탄 아르딤같은 경우 기아 타이거즈로부터 약 5천만원 후원을 받고 있다. 용인시가족센터 샐러드볼 야구단 등 후원 사업 경우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후원부분을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여 후원금에 대한 확보를 조금 더 강화 했으면 좋겠다. 올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후원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한 확보를 조금 더 강화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수희 위원 :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풍성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 권정희 위원 : 후원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후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 이수희 위원 : 한사람의 업무 중 한가지를 후원 업무로 겸업하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다.
- 권정희 위원 : 후원 사업을 특화하여 실무자가 후원사업에만 전담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
- 이수희 위원 : 알겠다고 답변하다. 그리고 내년에 도입되는 경기도 사업 중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증액이 된 사업이다. 카페 같은 경우에도 오랜 세월 동안 안정화시키고 싶었지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상욱 과장님의 해결해 주셔서 내년에는 카페 세팅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사업비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부모 가족 및 결혼이민자분들도 바리스타로 활동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올해 실무자들이 재혼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내년에는 난임 가구 등 가족들이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세분화 할 계획이다.

- 신재학 위원 : 저희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를 용인, 이천, 여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여주시건강가정센터에서 방임가정 아이들이 분리 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 있다고 들었다.
- 이수희 위원 : 여성가족부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용인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다.
- 이수희 위원 : 여홍명위원님은 올해 활동하면서 어떠셨는지 질의하다.
- 여홍명 위원 : 올해는 활동하면서 가장 바쁘고 일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실 우리 다문화쪽은 올해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다. 여러 부분에 실질적으로 후원 및 도움을 받아 다른시에서 용인시로 잘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용인에 와서 손을 잡아 줘서 새 삶을 시작하고 빨리 일어서는 모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 굉장히 바쁘기도 하지만 뿌듯하다. 사례자들이 고맙다고 연락이 계속 오니 이런마음으로 후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느끼게 되었다.
- 이수희 위원 : 사실 후원담당자는 1명이지만 후원담당자의 팀이 사업을 하면서 후원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사례관리 담당과 올해 가족역량 사례도 T.O가 한명 더 늘면서 팀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후원이 잘 이루어져 기쁘고 감사하다.
- 이수희 위원 : 샐러드볼 야구단 영상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 용우영 위원 : 영상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다. 현재 12명의 저학년 초등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명중 8명은 비다문화가정, 4명은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러시아 스리랑카 같은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자친구도 활동하고 있어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든다. 11회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코치들에게 전문적으로 기술들을 배워가고 있다. 다만 아쉬운점은 친구들이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활동에 제약이 있어 실내활동만 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래도 코치들이 1:1로 교육을 하고 있어 내년엔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재단 산하기관 중 아르딤복지관에도 야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전달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팀과 친선경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용인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야구단들이 있어서 긴밀하게 소통을 가져볼 예정이다.

- 권정희 위원 : 야구단 있는 기업에 견학을 문의하면 좋을 것 같다.
- 용우영 위원 : 현재 두산베어스에 요청은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전면폐쇄 상태여서 불가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두산베어스에 방문할 계획이다.
- 권정희 위원 : 가까이 공세동에 위치한 삼성SDI도 있으니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원 담당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직원이 후원을 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자 동탄 아르딤도 실내야구단 만들었다.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 이수희 위원 : 감사하다고 답변하다. 샐러드볼 야구단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다. 최재우위원님도 올해 사업들을 보면서 코멘트나 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제안 있으시면 말씀 부탁 드린다.
- 최재우 위원 : 잘해주고 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 더 열심히 배우겠다.
- 이수희 위원 : 올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22년 주요사업을 발표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다.

■ 제3호 의안 : 2022년 주요사업 보고

- 김아영 총괄팀장이 2022년 주요사업을 PPT자료로 보고하다.

○ 폐회 선언

- 김아영 총괄팀장이 특별한 질의 없이 2021년 4분기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